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5.15 vol.167

[www.jthink.kr](http://www.jthink.kr)

연구진  
김재구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연구위원  
장세길 -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김상엽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연구위원  
이지훈 - 미래전략연구부 부연구위원

#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5.15 vol.167

## CONTENTS

###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I.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	4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불균형의 현주소	4
2. 국토발전축과 국가균형발전	5
II. 전라북도 지역발전축 구상	6
1. 전라북도내 주요 연계축 구상 및 고속도로 현황	6
2.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 구상	7
3. 지역 연계발전과 전라북도	7
III. 국토발전축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안	8
1. 지방을 주축으로 제안되는 국토발전축 전환 요구	8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제안 : 국가균형발전축	10
IV. 국가균형발전축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 방안	12
1. SOC부문	12
2. 산업부문	14
3. 문화관광부문	15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북축에 편중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 즉 지방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 도래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 개발 및 발전축이 형성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
  - 비수도권은 저성장 기조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전라북도 역시 국토발전축의 영향으로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이 설정되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부권을 연계하는 성장축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지역발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진행
  - 전라북도와 타지역간 연계, 특히 전라북도 동측에 위치한 지역들과의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는 강화가 전라북도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
-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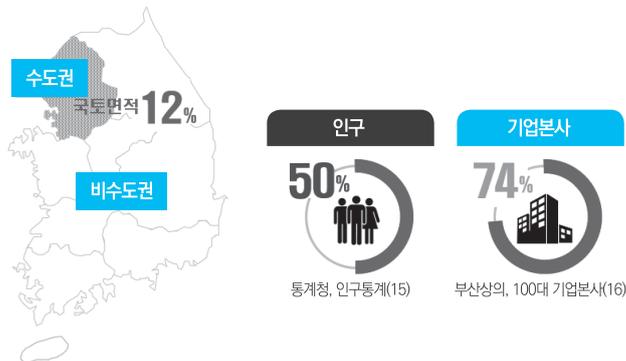
  -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는 지방을 주축으로 동서축, 강호축,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영호남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
  - 국가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축”설정에 주도적 역할 모색 필요

  - SOC부문: 동서통합 연계의 핵심인프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제시
  - 산업부문: 전기·자율차, 차세대융합콘텐츠,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분야 등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 가능
  - 문화관광부문: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 I.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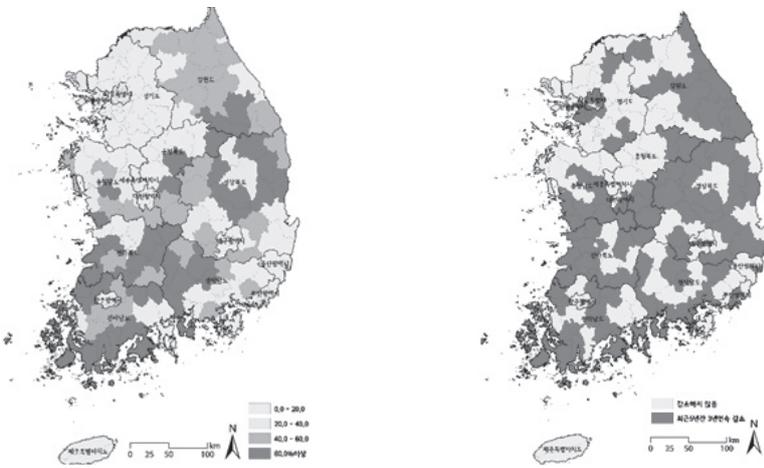
##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불균형의 현주소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부축 등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의 개발 및 발전축이 형성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은 전 국토의 약 12%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0%와 1000대 기업 본사의 약 74%가 집중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현황

- 국가적으로 저성장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
  -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일자리 감소, 산업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
  -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국가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수요확보 등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발전에도 악순환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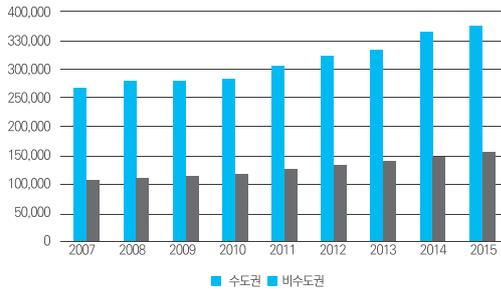
(A) 최대인구 대비 인구감소율(1975~2015년)

(B) 3년연속 인구감소 지역: 최근 5년(2012~2016)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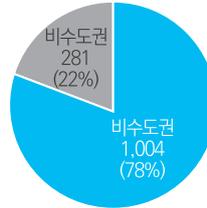
(그림 2) 인구감소지역 현황<sup>1)</sup>

1) 권영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전략,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3.(재인용)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의 산업위기 상황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ICT와 문화산업의 수도권 편중으로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 우려



(A) 연구개발 관련 종사자수<sup>2)</sup>



(B) ICT 벤처기업 현황<sup>3)</sup>

(그림 3) R&D 및 ICT 관련 수도권 편중 현황

-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강조하여 왔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화된 발전관성(development inertia)으로 인하여 지역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격차 심화로 인해 국가 전체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2)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R&D 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자원서비스업), 각년도

3) 조유리외, ICT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추적조사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12

## 2. 국토발전축과 국가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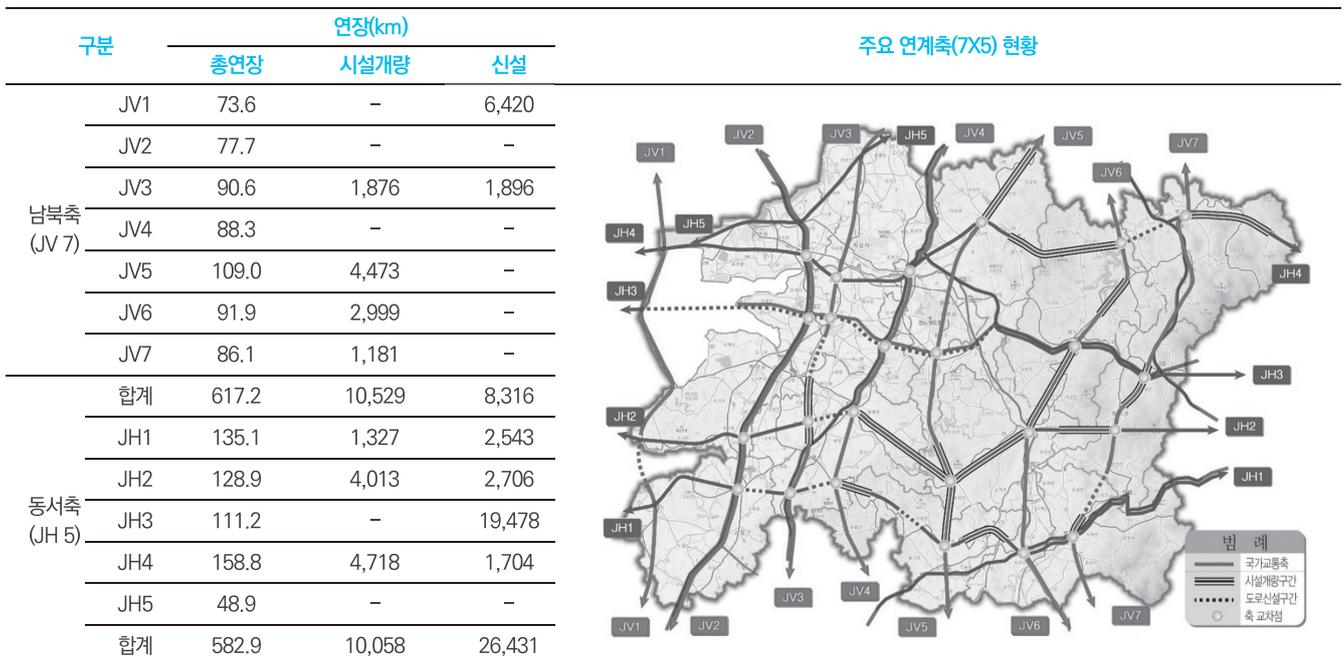
-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제시
  - 2018년 3월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기존 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을 참여정부 시기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수도권 위주의 국가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지역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투자는 새로운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지역의 주도하의 내발적 발전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북축에 편중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 즉 지방을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

## II. 전라북도 지역발전축 구상

### 1. 전라북도내 주요 연계축 구상 및 고속도로 현황<sup>4)</sup>

- 전라북도(2015)는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을 통해 전라북도내 주요 연계축(7X5) 제안
  - 사업 물동량 분석 결과 동서축 사업 물동량이 남북축 사업 물동량보다 3.2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전라북도를 연계해주는 주요 연계축(7X5) 구축을 위해서는 단절구간에 대해 신규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

4) 전라북도,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2015.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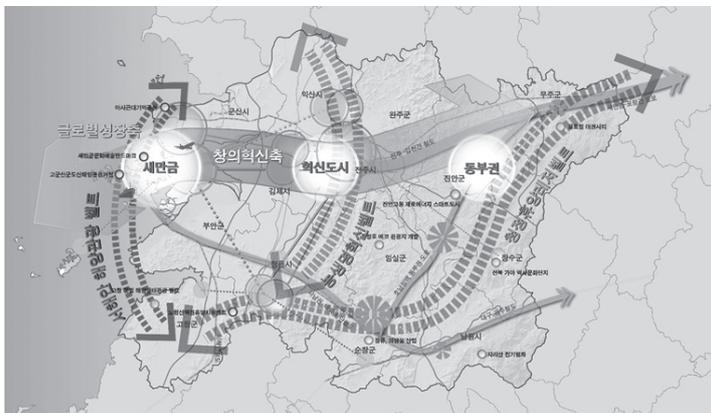
(그림 4) 전라북도내 주요 연계축

- 현재 전라북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이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의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일부구간만이 연결된 상황
  - 남북 :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 전주광양고속도로
  - 동서 : 광주대구(88올림픽)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 2.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 구상<sup>5)</sup>

- 전라북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창의혁신축을 비롯하여 농생명혁신벨트와 서해안해양관광벨트, 청정휴양레저벨트를 지역성장축으로 구상
  - 핵심거점으로는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 그리고 동부권을 핵심거점으로 검토
  - 전라북도내 낙후지역인 동부권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권역에 대한 핵심거점화 및 지역성장축으로의 설정 필요
  - 이렇듯 전라북도 역시 지역내에서의 성장발전축으로 창의혁신축과 청정휴양레저벨트 등 지역내 동서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토발전축과의 연계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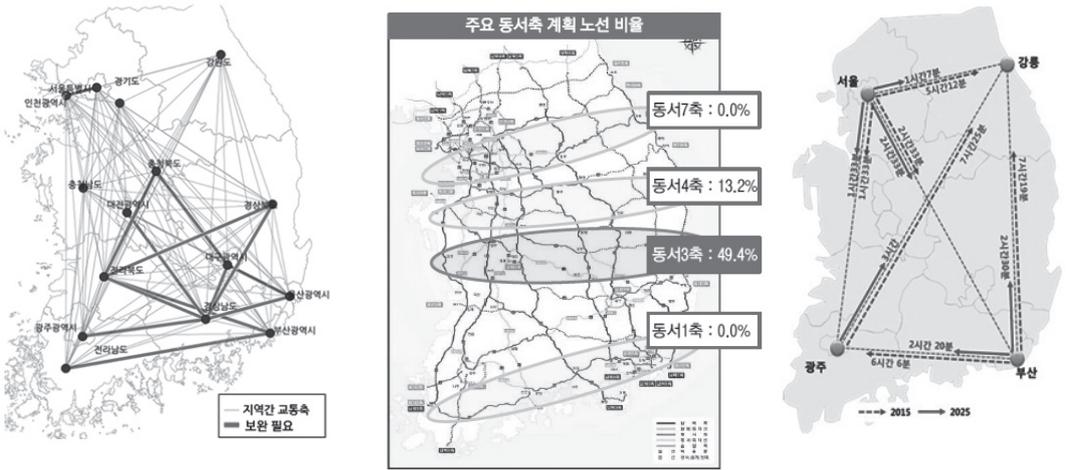
5) 전라북도 내부자료, 전라북도 혁신성장 미래 비전 2050



(그림 5)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안)

## 3. 지역간 연계발전과 전라북도 대응

- 지역 중심으로 국토발전축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전라북도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부권, 서해안권, 영호남권 등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이 지역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경부축 등 남북축 중심의 수직적 공간 형태의 국토 인프라로 인해 전라북도와 타지역간 연계, 특히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전라북도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의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는 제한적인 실정
  -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4월 개통되었으나,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4월 개통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강원도,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과의 공간적 접근성에 비해 시간적 접근성은 매우 취약
  -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시설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3축은 2017년 현재 49.4%가 계획중으로 아직도 미완의 상태
  -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교통망, 간선도로망 등 전라북도 지역간 교통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



(A) 주요 간선도로망 교통축<sup>6)</sup>

(B) 주요 동서축의 계획 노선<sup>7)</sup>

(B) 고속철도 접근성 개선 계획<sup>8)</sup>

(그림 6) 전라북도 교통축 현황

- 전라북도의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 절실
  - 전라북도내 지역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 타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국토발전축 설정 절실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성장지역(낙후지역)이 우선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을 위한 청사진 제시 필요

6)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 (2016~2020), 2017.1

7) 김상업,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연구원 2017.5.

8) 국토교통부,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보도자료, 2016.6.16.

### III. 국토발전축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안

#### 1. 지방을 주축으로 제안되는 국토발전축 전환 요구

##### ■ 동서축

- 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축이 국가의 불균형 개발을 가져오고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어 동서축 개발 시기 도래
  - 국가적으로도 남북축·수직형 중심에서 동서축·수평형으로 개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 필요
  - 동서간의 인프라 연결을 시작으로 동서간의 다양한 교류 및 행사 추진을 통해 자연스러운 동서화합, 국민화합 기대
- 국토공간상에서 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로 국토개발의 남북축에 대비되는 의미로 동서축이라는 명칭을 사용

## ■ 강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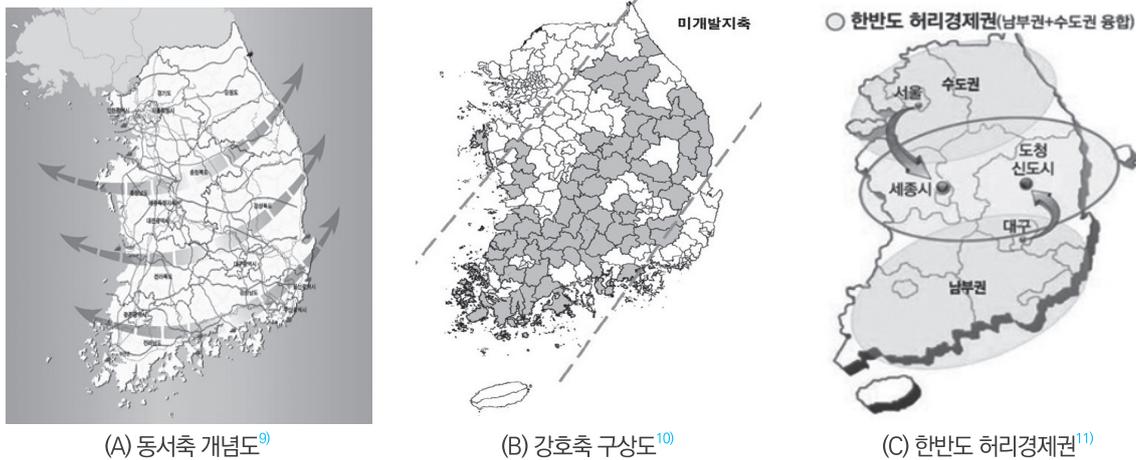
- '강호축(江湖軸)'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국가성장축으로 서울에서 대구, 부산 등 국토를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京釜軸)'에 대비되는 개념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의미 강조
  - '강호축'은 충북을 중심으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과 호남을 잇는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人'자형의 고속교통망을 전남-충북-강원을 잇는 'X'자형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강호축 개발의 핵심
- 강호축 소속 지자체 거점별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혁신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초광역 발전전략의 일환

## ■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 '한반도 허리'란 한국의 중심인 북위 36도를 지나가는 지역을 의미하며, '경제권'이란 경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등 7개 시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경제생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의미
  - 기존의 ㄱ자형 축으로는 국토균형발전에 한계가 예상되어 새로운 행정수도(세종시) 구축에 따른 날일(日) 자형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보완 요구
-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고 환동해와 환서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만드는 것

## ■ 영호남권(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호남간의 교류 확대가 지역불균형을 극복하는 화해의 통로이자 상생·화합의 길이라 강조
  - 경북내륙과 남해안을 연계하여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과 남해안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경제 및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은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호남간 수송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 특히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영·호남간의 교류 기회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켜경제·문화·관광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
  - 영·호남간 교류의 확대는 양 지역간의 화합은 물론 국가경제발전 지형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림 7) 국토발전축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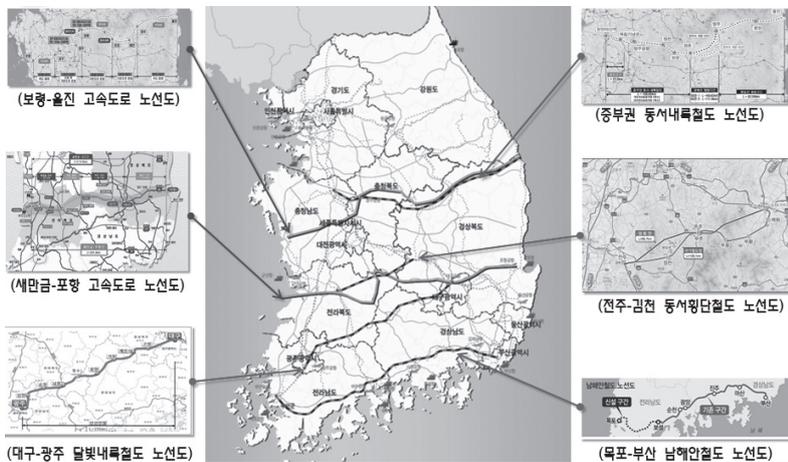
##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제안 : 국가균형발전축

-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필요성 측면이라는 공통점 발견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 교통망 구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
-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필요

9) 권영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전략,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3.

10) 홍성호, 강호축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천 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공동선언 토론회 자료집, 2018.2

11) 구글 이미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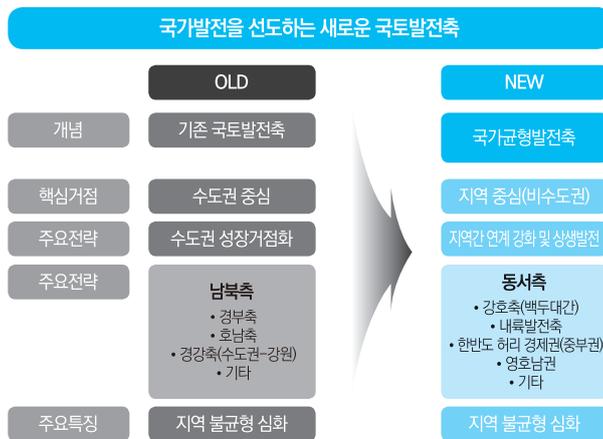


(그림 8) 국토발전축 전환과 관련된 교통망 구축 논의

-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의 개념 설정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 공간구조적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 확보 및 지방분권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필요
  - 지역 발전만을 추구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지역의 역할을 고민하고, 지방정부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지방(비수도권)이 중심이 되고 기존 지역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균형발전축” 제안

  - 기존 국토발전축 ->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경부축, 호남축, 경강축 등
  - 국가균형발전축 -> 지방 중심의 동서축: 강호축(백두대간권),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영호남권, 내륙발전축 및 각각의 해안권 등
- 종합하면 “국가균형발전축”은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강화 및 상생발전을 주요 전략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을 의미



(그림 9) 국토발전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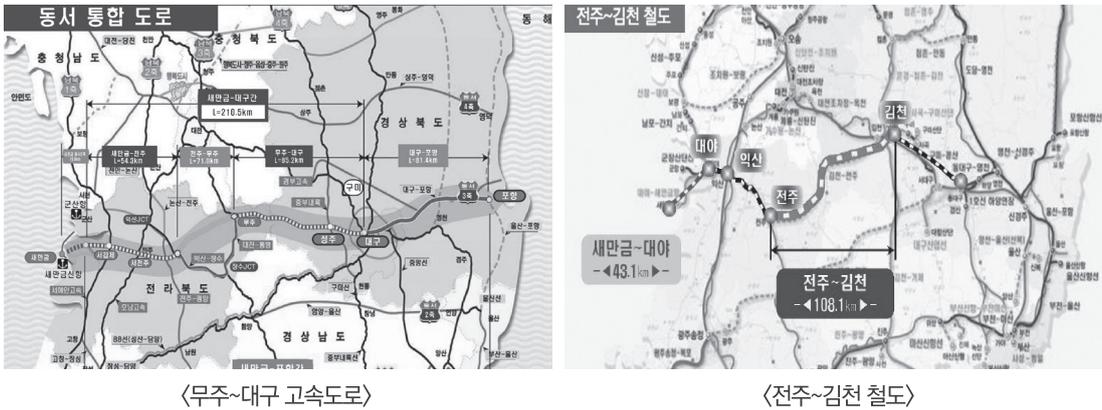
## IV. 국가균형발전축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 방안

- 전라북도는 동서로 계획된 지역내 발전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발전축인 “국가균형발전축” 선도가 중요
  -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틀을 깨고 “국가균형발전축”이라는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해 나감으로써 전라북도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변방지역이 아닌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재설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필요
  - 국가차원에서 전 국토가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 내 중북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축”을 바탕으로 지역간의 초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해 시도 간 경쟁적 요소 최소화 가능
-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 용지매립, 2023 세계잼버리 개최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의 조성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축” 구축에 있어 공간상의 중요한 역할 담당 가능
  - 새만금은 국가간 경제협력 중심지로 한중산업협력단지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 신산업 시범지역 조성을 포함한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추진
  -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각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 및 발전 전략도 필요
- 지역간 연계 강화 및 상생발전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축”을 선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부문별 지역발전 및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

### 1. SOC부문(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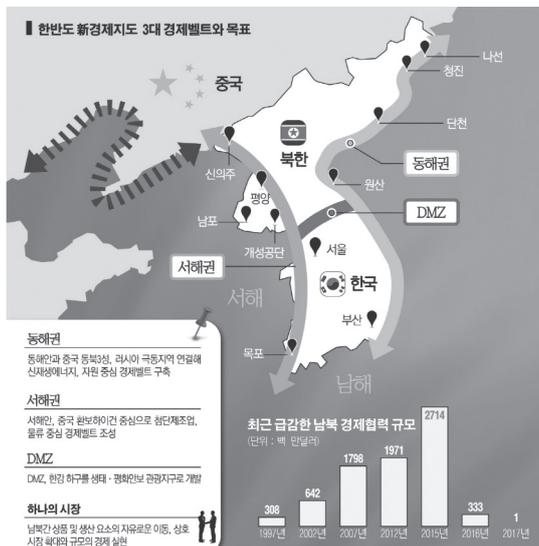
-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축 위주의 도로·철도 건설로 이어졌고 이는 동서간 연결성 부재를 초래하여 지역단절과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서통합 SOC 연계축 제안
  - 정부는 동서축 연계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계획 내에서의 전라북도 역할을 고려하여 동서통합 SOC 연계축의 구상 필요
  - 체계적인 투자방향 설정과 중복 투자 방지 등을 통한 동서간 도로 및 철도 투자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7X9’간선도로망 구축계획, ‘X+α’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필요
- 중앙정부의 계획안에서 전라북도의 동서통합 연계축을 구성할 핵심인프라는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제시
  -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며, 전국간선도로망(7X9) 계획의 동서 3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음
  - 전주~김천 철도는 서쪽의 새만금, 군산(전북) 지역과 동쪽의 대구, 김천(경북)를 연결하는 동서 횡축 간선철도망의 중심 구간

-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는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물리적·사회적으로 단절된 두 지역의 연계성과 상호교류를 활성화와 함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기여



(그림 10) 동서통합 연계축 전라북도 주요 SOC사업

- 최근 문재인정부는 지금 미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토발전축인 “국가균형발전축”과 전라북도의 역할 고려 필요
  -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통일을 향한 순풍이 불기 시작
  - 한반도 新경제지도의 3대 경제벨트 중 전라북도는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와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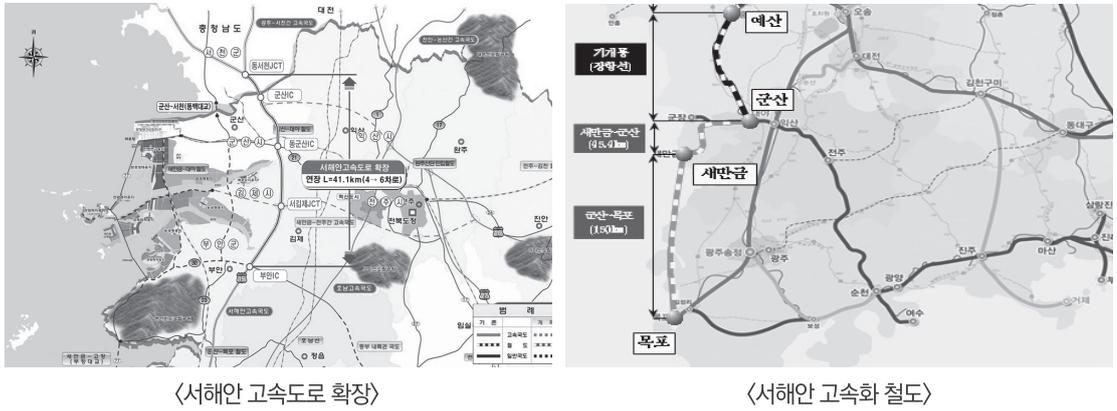


(그림 11) 한반도의 신(新)경제지도<sup>12)</sup>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황해 경제벨트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핵심인프라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사업이 해당

12)자료: 이투데이 보도자료(2018), [남북 정상 회담 D-1] 동·서해·DMZ 경제벨트 공동개발... 南北경협 돌파구 모색

- 서해안고속도로는 국가기간망(7X5)의 남북1축에 해당되면서 환황해 경제벨트의 핵심 도로로 장래 교통수요 대응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이 필요한 노선
-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사업은 'X+O'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에서 O자 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으로 한 황해권시대 서해안 지역의 남북 철도 수송의 핵심 인프라 시설



(그림 12) 환황해 경제벨트 전라북도 주요 SOC사업

## 2. 산업부문

- 수도권과 비교해 민자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비수도권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축” 구축의 일환으로 주력·신산업 분야에서 지역별 혁신자원간 연계협력이 필수

  - 신산업 분야의 가치사슬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국가R&D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사업 추진
- 그간 전라북도는 산업부문에 있어 타지역(동서축)과의 협력을 통한 주요 대규모 R&D 사업으로 탄소산업, 바이오화학 등 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진행

  - 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은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동추진
  -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전북이 바이오소재 생산에 특화하고 대구는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화로 중점으로 ‘바이오화학 2.0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 공동 추진
- 향후 전기·자율차, 차세대융합콘텐츠,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분야 등 국가 신산업 분야도 다른 지역과의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가능성이 높음

  - 전기·자율차는 전북과 광주는 상용 및 SUV 친환경·안전 등, 대구와 경북 등이 전장·편의 차량부품산업 특화 육성
  - 전북은 5G가 불러올 초융합 콘텐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경북과 공동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산업 육성을 공동으로 기획 중
  - 농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전북(노지작물), 경북(밭)이 각 분야에 특화하여 사업 육성이 진행 중으로 향후 연계협력 방안 모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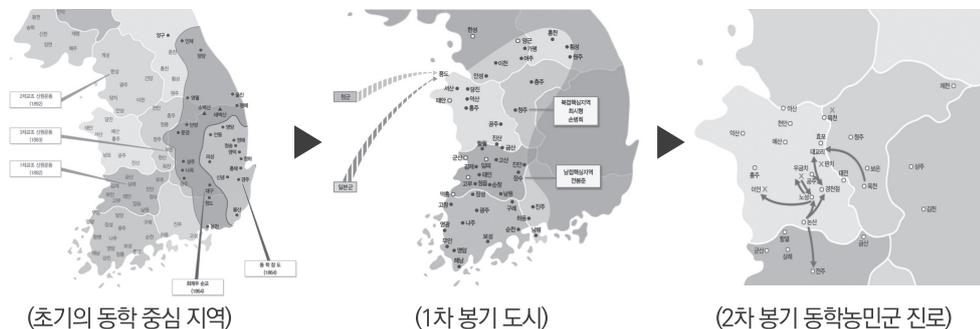
(그림 13) 전기·자율차 신산업 분야 지역연계 육성사업<sup>13)</sup>

### 3. 문화관광부문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서축의 역사적 동질성을 복원함으로써 동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역사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축”의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
  - 특히, 동서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때로는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에 저항하거나, 때로는 외세의 침략에 함께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분절적 행태
  - 지역간(동서축) 역사문화 연계 발전 전략 예시: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평야의 쌀문명과 대비되는 백두대간 산림문화권 등

1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위원회 회의자료, 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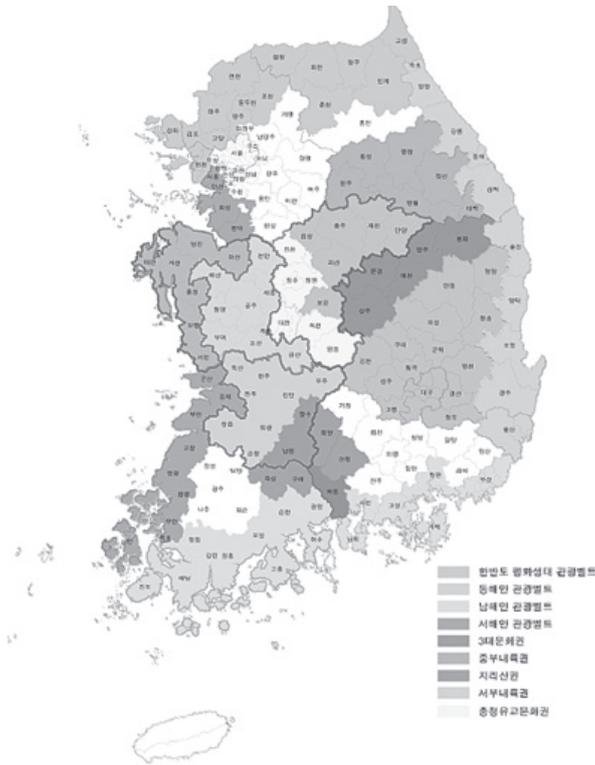
14)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http://www.1894.or.kr/main_kor/index.php))



(그림 14) 동학농민혁명 중심지역 및 봉기 진로<sup>14)</sup>

-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지금까지 11건이 수립 추진되었으나 남해안 계획 2건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북축으로 계획

-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개발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관광개발사업
- 중부권(전라북도 포함)을 중심으로 동서축으로 계획된 사업은 지리산권 개발계획뿐이나 2017년 사업 종료



(그림 15) 광역관광개발계획

-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남북축으로 개발되었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백두대간을 중심에 놓고 동서가 연계되는 광역관광개발계획 필요
  - 동서축의 광역관광개발계획 예시: 백두대간 산림치유 광역관광개발계획,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백두·노령산맥 중심의 강호축 관광개발계획 등